



아트인컬처
January 2014

ANNUAL REPORT

③ 미장센: 연출된 장면들

3. 28~6. 9 삼성미술관 리움

이브 수스만, 그레고리 크루드슨, 진기중, 토마스 데만트, 아다드 하나, 양푸둥, 정연두 등 8명

'미장센'이라는 영화적인 기법을 활용한 작가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에서 시각적 연출을 탐구한 전시. 미장센은 원래 연극 무대의 장면 연출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영화에서는 화면에 보이는 시각적인 구성 요소를 통칭하는 넓은 용도로 사용된다. 영화 속 장면을 재구성한 영상에서부터 영화 스틸사진처럼 연출한 구성 사진, 세트 영상을 화면에 담아 낸 설치작품까지, 정교한 장면 연출이 두드러지는 국내외 작가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내러티브의 전통을 재활용하는 최신 경향을 다각도로 살폈다.

남F <트리말키오의 연화:
배의 도착> 디지털프린트/
색 295×495cm 2010

쪽 페이지
두 <새-B 카메라> 이면화
106×106cm 2013





“눈속임 기법의 영화적 연출을 통해 만들어진 시각예술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오늘날 가상과 현실의 관계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전시였다. 참여 작가의 재기발랄한 공간 연출과 미술적 공간 디자인에 연신 감탄하면서 그들의 멋진 상상력을 엿볼 수 있었다.” / 김성호, 2013 전시 앙케트